

보도	2023.8.24.(목) 10:30	배포	2023.8.23.(수)		
담당부서	자산운용검사국	책임자	국 장	김형순	(02-3145-7690)
	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TF	담당자	팀 장	임형조	(02-3145-6880)
	분쟁조정 3국	책임자	국 장	황승기	(02-3145-5720)
	사모펀드팀	담당자	팀 장	이진태	(02-3145-5729)

「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TF」 검사 결과

I. 검사 실시 개요

□ 금융감독원(원장 이복현)은 '23.1월말 「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TF」를 설치하여 라임*·옵티머스*·디스커버리자산운용(3개 운용사)에 대한 추가검사를 실시 하였습니다.

* 라임의 가교운용사 → 웰브릿지, 옵티머스의 가교운용사 → 리커버리

- 금번 검사는 언론 등에서 제기한 각종 새로운 의혹을 규명하고 투자자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
- 기존 검사 결과, 관련사건 법원판결 내용 등을 기초로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.

□ 3개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, 기존에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위법혐의가 확인되었습니다.

- 운용사의 경우 ①특정 펀드 수익자를 위한 펀드 돌려막기, ②펀드 자금 횡령, ③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등을 적발하였고,
- 펀드자금이 투자된 기업(‘피투자기업’)에서의 횡령·배임 혐의 등 다수의 부정한 자금 유용 사례를 발견하여 지난 5월부터 수차례 수사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.

□ 한편, 검사 과정에서 발견한 회수 가능한 자산 관련 정보를 가교 운용사에 통보하는 등 펀드 자금 회수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.

II. 운용사별 주요 검사 결과

※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으로서 향후 제재 및 검찰수사 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

- ◆ (라임) 펀드 돌려막기, 5개 피투자기업의 횡령 혐의 등
- ◆ (옵티머스) 투자관련 금품 수수, 펀드자금 횡령, 부정거래 공모 등
- ◆ (디스커버리) 펀드 돌려막기, 직무정보 이용, 펀드자금 횡령 등

가 라임자산운용 관련

1 특정 펀드 수익자를 위한 펀드 돌려막기

- 대규모 환매 중단('19.10월) 선언 직전인 '19.8~9월 중 4개 라임 펀드에서 투자자산 부실, 유동성 부족 등으로 환매 대응 자금이 부족하자,
 - 다른 펀드 자금(125억원)과 운용사 고유자금(4.5억원)을 이용하여 일부 투자자*들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 줌으로써
 - * ○○중앙회(200억원), 상장회사 ○○(주)(50억원), 多選 국회의원(2억원) 등 일부 유력인사 포함
 - 동 4개 펀드 투자자의 손실을 다른 펀드 투자자에게 전가하였습니다.

[참고] 특정 펀드 수익자를 위한 펀드 돌려막기 구조



2 피투자기업 관련 횡령 혐의

- ▶ 라임이 CBBW, 사모사채 등을 투자한 5개 회사 등에서 약 2,000억원의 횡령 혐의 적발

- ① '18.12월 라임펀드는 비상장 A사가 발행한 사모사채에 300억원을 투자
 - A사(비상장)의 회장 甲 등은 동 자금을 임원 대여금 명목으로 인출한 후 276억원을 필리핀 소재 리조트 인수에 사용하는 등 총 299억원을 유용한 혐의를 발견하였습니다.

- ② '18.1월 라임펀드는 B사의 계열사(상장사)가 발행한 CB에 70억원을 투자
- B사(비상장) 대표이사 乙 등은 동 자금을 포함한 계열사 자금 400억원 중 50.6억원을 본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용한 혐의를 발견하였습니다.
- ③ '17.9월 라임펀드는 C사 BW에 400억원을 투자
- C사(상장)* 대표이사 丙 등이 '18.9 ~ '19.8월 자회사 지분 매각 대금 등 180억원을 他 회사의 임원과 공모하여 횡령한 정황을 발견하였습니다.
- ④ '18년 라임펀드(약 \$1억)는 D사와 캄보디아 개발사업을 공동 진행
- D사(상장) 대표이사 丁은 '18.5월 회사 자금을 허위 명목(캄보디아 개발사업 실사보증금)으로 \$1천만(134억원 상당*)을 홍콩 소재 회사에 송금하고,
* 외화금액은 '23.8.22. 환율(1,338.7원/\$)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(이하 동일)
 - '18.12월에는 자회사에 대한 허위의 대여금 명목으로 40억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정황이 있습니다.
 - 한편, 라임펀드가 위 회사와 공동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캄보디아 리조트 투자액 \$1억(1,339억원 상당)도 D사의 이사 戊가 조세피난처 소재 법인 등에 이체하여 횡령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.
- ⑤ E사(비상장)*의 회생관리인 己는 '22.5월 ~ 9월 기간 중 재고자산 매각시 허위의 매매계약서(매각액 69.5억원)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실제 매각대금(159.9억원)과의 차액 90.4억원을 본인 회사 등에 송금하였습니다.
- * 라임펀드는 '21.2월 E사 전환상환 우선주를 취득

※ [참고] **라임 펀드자금 회수 지원**

- ☑ **검사과정에서 라임 펀드의 투자처가 보유한 제3자에 대한 대여금 5건(191억원)을 발견하였으며,**
 - 가교운용사가 **채권자 대위**를 통하여 제3자에 대해 채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조치

나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

1 투자 관련 금품 수수

- 공공기관 A의 기금운용본부장인 甲은 '17.6월~'18.3월 기간중 전체 기금의 약 37%에 달하는 총 1,060억원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하면서
 - 옵티머스자산운용 부문 대표인 乙로부터 '16.6월 1천만원을 받고 甲의 자녀는 乙이 회장으로 있는 B사로부터 급여를 수령하는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발견되었습니다.

2 피투자기업 관련 횡령 혐의

- 옵티머스 펀드자금이 투자된 SPC의 대표이사 丙은
 - '18.11~'19.2월경 동 SPC가 보관 중이던 펀드자금 등 15억원을 임의로 인출(수표)하였으며,
 - 이 중 12억원을 법무법인 C의 대표변호사 丁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발견되었습니다.

3 前 임원의 부정거래 공모

- '17.6월 당시 임원 戊는 부문 대표였던 己 등이 투자자를 기망하여 펀드 자금을 모집*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
 - * 모집된 펀드 자금을 사모사채에 투자 목적이었음에도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기망하여 펀드 자금을 모집
 - 펀드 자금을 투자제안서와 달리 매출채권 매입이 아닌 비상장사 사모사채에 투자하도록 운용지시를 하고,
 - 동 과정에서 己로부터 1억원을 수수하는 등 己 등의 부정거래 행위에 공모한 정황을 추가로 발견하였습니다.

4 부동산 개발 시행사 지분 취득 자금 제공

- 옵티머스 임원 己는 펀드자금을 투자한 시행사 B사를 통해 수도권에서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,
- 乙이 물류단지 조성에 필요한 인허가를 신속하게 획득할 것을 기대하고 '20.5월 乙의 B사 지분 50% 취득 자금(43.3억원)을 대납해 준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하였습니다.

※ [참고] 옵티머스 펀드자금 회수 지원

- ☑ 과거 실사 과정에서 실재성이 확인되지 않은 펀드자금*이 실제 SPC를 통해 특정 부동산개발 회사에 투자된 사실이 추가로 파악되었으며,
 - * 실사 당시 실재성이 확인되지 않아 회수가능가액을 “0”으로 평가
 - 현재 SPC가 보유하고 있는 관련 수익권(감정평가금액 27.1억원)을 통해 투자금 회수 추진이 가능해졌음

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 관련

1 연계거래 방식의 펀드 돌려막기

□ 디스커버리는 펀드 자금을 해외 SPC에 투자하고, 동 SPC가 美 대출채권 등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운용*하여 왔습니다.

* 개별 펀드는 SPC의 발행채권을 매입하고, SPC 관리인이 동 자금을 집행하는 구조

□ 그러나, '19.2월 해외 SPC ①의 자금 부족으로 만기가 도래한 3개 펀드의 상황이 어렵게 되자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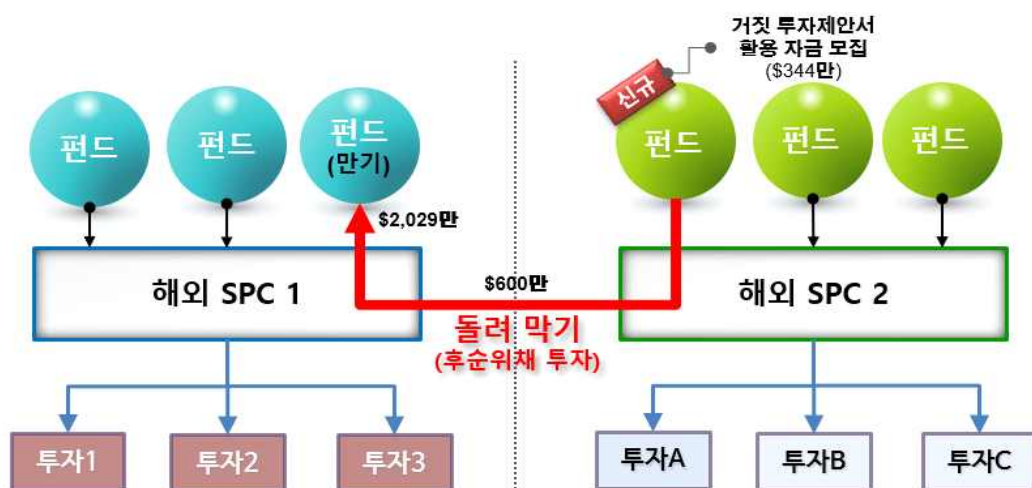
○ 해외 SPC ②가 SPC ①의 자금을 후순위채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원함으로써 상기 3개 펀드를 상환(\$2,029만, 272억원 상당)하였고,

○ 이후 SPC ②는 동 후순위채권의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습니다.

□ 한편, 운용사는 상기 과정에서 SPC ②의 신규 펀드자금 모집(\$344만)은 SPC ① 투자 펀드를 상환할 목적이었음에도 투자대상을 거짓 기재*한 투자제안서를 이용하였습니다.

* SPC ②를 통해 특정 대출플랫폼의 대출채권 등을 매입한다고 기재

[참고] 연계거래를 통한 펀드 돌려막기 구조



2 직무 관련 정보 이용 등

- 디스커버리 임직원 4명은 부동산 대출펀드 운용 과정에서 알게 된 부동산개발 인허가 사항* 등 직무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

* ○○시 △△구의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통과, □□의 매입심의 승인 완료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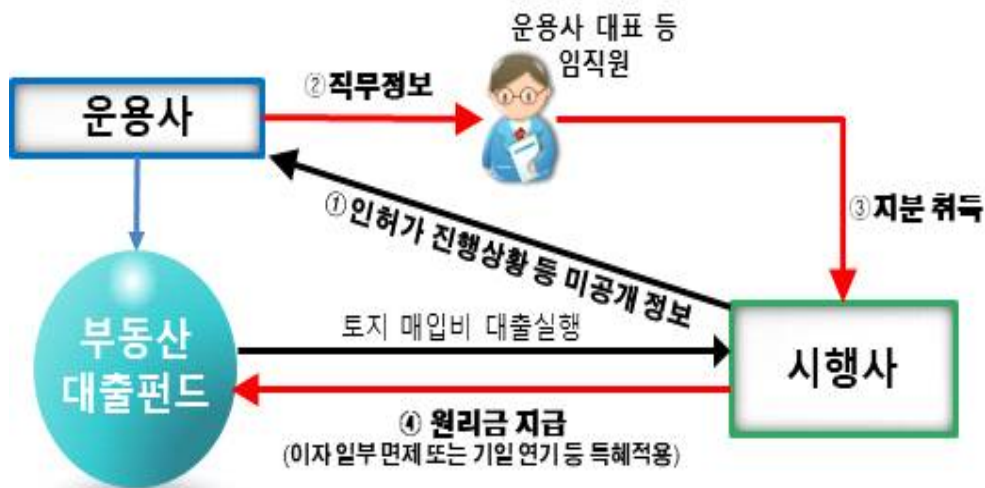
- '18.8월~10월 중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로 관련 시행사의 지분을 취득*한 후, 배당수익 및 지분매각차익으로 46백만원 상당의 사적이익을 취한 사실을 적발하였습니다.

* 시행사 지분의 총 60%(1.7억원)를 취득

- 또한, 디스커버리는 동 시행사에 '18.8월 및 12월(2회) 부동산펀드 자금으로 총 109억원을 대출한 후,

- 약정 이자의 일부(약 5.7억원으로 추산)를 면제해 주거나, 이자지급 기일을 연기해 줌으로써
- 펀드 이익을 훼손하고 차주(시행사)의 이익을 도모한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.

[참고] 직무정보 이용 및 제3자 이익제공 구조



3 펀드 자금 횡령 및 배임수재

□ 디스커버리 펀드 자금이 투자된 해외 SPC의 자금관리 및 투자 업무를 수행한 甲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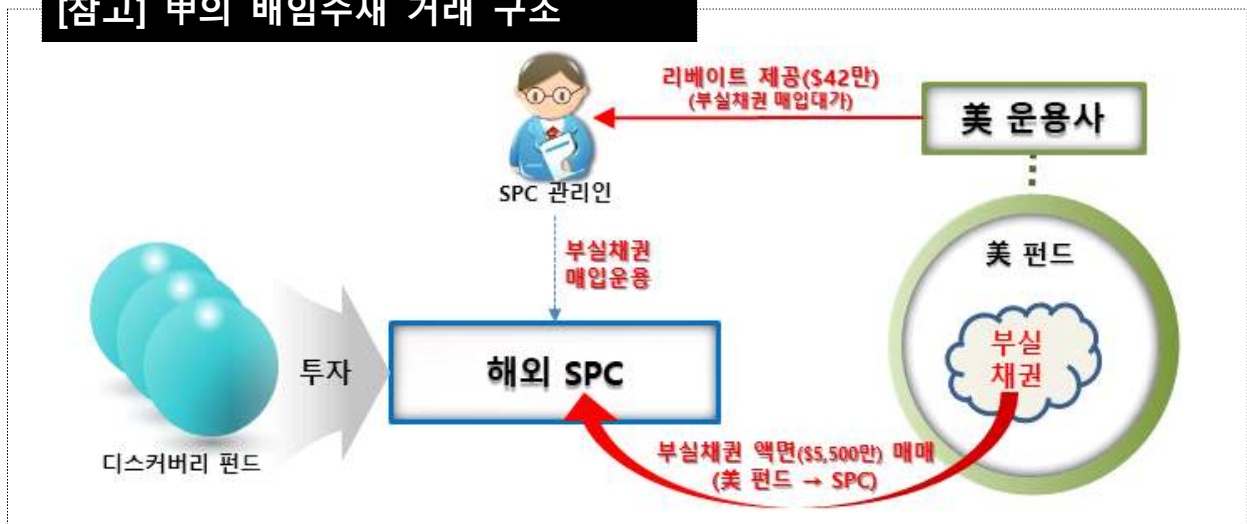
① '17.9월 해외 SPC ❶의 자금으로 美 운용사 A(현재 법정관리)의 펀드가 보유한 부실 자산*을 액면가(\$5,500만)로 매입하고

* A사 대표에 대한 美 SEC의 기소장에 따르면 SPC ❶이 A사로부터 가장 부실한 (Worst-performing) 채권을 매입한 것이라고 적시

- 이에 대한 대가로 \$42만(6억원 상당)을 A사 및 A사 대표로부터 수취*하는 등 수재 혐의를 확인하였습니다.

* 관련 자금은 甲이 대표이사인 국내 법인 계좌로 입금

[참고] 甲의 배임수재 거래 구조



② 또한, '20.4월~12월 중 자신이 관리하던 해외 SPC ❷의 자금 \$63만 (8억원 상당)을 정당한 사유없이 본인 회사 등으로 임의 인출하여 유용한 사실도 발견하였습니다.

III. 향후 계획

가. 검사결과 제재조치 등

- 금번 검사결과는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,
 - 수사 통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협조하여 엄정 대처하겠습니다.
- 또한, 해외펀드 관련 위법행위 확인 등을 위해 美 감독당국(SEC, FDIC 등)과 컨퍼런스콜 및 이메일 등으로 긴밀하게 협조하여 왔으며,
 - 동 기관으로부터 확보한 자료 분석을 통해 추가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.

나. 분쟁조정

- 금융감독원은 '20.6월부터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연기로 인한 투자자 피해구제를 위해 분쟁조정을 실시해 왔습니다.
 - 그 결과, 3개 펀드(라임 무역금융 '18.11월 이후 판매분, 옵티머스, 헤리티지 펀드) 투자자는 '착오에 의한 계약취소'로 조정하였고,
 - 다른 펀드(라임 국내, 라임 CI, 디스커버리, 헬스케어 펀드) 투자자에 대해서는 판매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정도 등에 따라 손해액의 40~80% 수준의 '손해배상'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.
- 금번 추가 검사를 통해 분쟁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운용사의 위법행위 등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됨에 따라, 해당 펀드에 대해서는 분쟁조정 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.

- 디스커버리 SPC ①의 투자 펀드의 경우, 부실자산을 매입하고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에서 투자자가 정상적인 상황이 되는 것처럼 설명을 듣고 투자했다면 운용사 또는 판매사의 책임이 커질 수 있고,
 - 디스커버리 SPC ②의 신규 펀드는 다른 펀드 돌려막기를 위해 거짓 기재한 투자제안서로 펀드 자금을 모집했기 때문에, 판매사가 같은 제안서를 이용해 판매했다면 불완전 판매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
- 따라서, 기업은행 등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, 민원인의 펀드 가입 당시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 등 추가적인 확인을 거쳐 분쟁조정을 적극 실시토록 하겠습니다.

다 맺음말

- 향후에도 금융감독원은 자산운용산업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각종 불법행위를 엄단하여 자본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.
- 아울러 사모펀드 투자자 피해 구제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.

※ [붙임] 3개 운용사에 대한 검사결과 주요내용(요약)

I. 라임자산운용

구분	검사결과 주요 내용
펀드 운용 관련	<p>① 이익훼손금지 및 업무상배임 혐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특정 투자자들에게 환매를 해주기 위하여 다른 펀드 자금(125억원)을 라임펀드 A, B에 납입하고, - 운용사 고유자금(4.5억원)을 라임펀드 C, D에 납입한 후 동 자금 등으로 4개 펀드를 환매
피투자 기업 관련	<p>② 甲(A 그룹 임원) 등 3인 : 횡령 혐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A 그룹 임원 甲 등 3인은 A 그룹에 투자된 라임펀드 자금(300억원)을 횡령(299억원)하여 필리핀 소재 리조트 지분 차명 인수(276억원) 등에 사용
	<p>③ 乙(B사 前 임원) 등 4인 : 횡령 혐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B사가 라임펀드 등의 자금이 유입된 계열 상장사를 대상으로 발행한 전환사채 대금 중 50.6억원 횡령
	<p>④ 丙(C사 前 임원) 등 4인 : 횡령 혐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자회사 지분 매각 대금 등 총 180억원 횡령
	<p>⑤ 丁(D사 前 임원) 등 3인 : 횡령, 가장납입 혐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丁은 회사자금 중 캄보디아리조트 개발사업 실사보증금 명목 \$1천만, 대여금 명목 40억원으로 횡령하고 135억원을 가장납입 - 丁에게 캄보디아리조트 개발사업을 권유한 戊는 라임 캄보디아 리조트 투자금 \$1억을 조세피난처 소재 법인 등에 이체하여 횡령
	<p>⑥ 己(E사 관리인) : 횡령 혐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라임펀드 자금이 투자된 회사의 재고자산 매각 시 이면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이 소유하는 회사 등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재고자산 매각대금 (159.9억원) 중 90.4억원 횡령
펀드 자금 회수	<p>⑦ 펀드자금 회수 추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라임펀드 자금을 투자받은 A 그룹의 미상환 자금 중 A 그룹 前 임원 등에게 대여한 대여금 191억원에 대해 적극 회수 추진

II. 옵티머스자산운용

구분	검사결과 주요 내용
펀드 수익자 관련	<p>① 甲(A사 기금운용본부장): 투자 관련 금품 수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A사 기금의 펀드 투자와 관련하여 前 옵티머스 부문 대표로부터 금품 수수
펀드 운용 비리	<p>② 戊(옵티머스 前 임원) 등 : 부정 거래 공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己 등이 투자자를 기망하여 펀드자금을 모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투자제안서와 달리 SPC 사모사채에 투자하도록 운용 지시하고, 그 과정에서 1억원을 수령하는 등 부정거래 공모
피투자 기업 관련	<p>③ 丙(펀드자금 도관체 SPC 임원) : 펀드 자금 횡령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옵티머스 펀드자금이 투자된 SPC의 임원 丙은 회사가 보관 중인 자금 15억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
	<p>④ 己(옵티머스 임원) : 부동산 개발 시행사 지분 취득 자금 제공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己는 乙이 물류단지 조성에 필요한 인허가를 신속하게 획득할 것을 기대하고 乙의 B사 지분(50%) 취득 자금(43.3억원)을 대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 발견
펀드자금 회수지원	<p>⑤ 부동산 신탁 수익권 투자금(55억원) 회수 추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실사 당시에는 펀드자금 유입여부가 불분명하여 회수가 곤란하였던 투자처에 대하여 펀드자금 유입 사실 확인후 투자금 회수 추진

Ⅲ. 디스커버리자산운용

구분		검사결과 주요 내용
펀드 운용 관련	① 해외 펀드	<p>① 디스커버리 : 연계거래 방식의 펀드 돌려막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회사는 해외 SPC① 자금 부족으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, SPC②에 투자된 신규펀드 자금을 이용하여 SPC①의 만기 도래 펀드를 상환하고,- 실제 투자대상에 대한 정보가 거짓기재된 투자제안서를 이용하여 투자자 모집
	② 부동산 펀드	<p>② 디스커버리 임직원 4명 : 직무관련 정보 이용 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임직원 4명은 부동산 펀드 운용 과정에서 알게 된 사업 인·허가 진행상황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 자금으로 부동산 개발 시행사의 지분을 취득
		<p>③ 디스커버리 : 펀드 이익을 훼손하며 시행사의 이익을 도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디스커버리는 특별한 사정없이 시행사가 지급하여야 할 이자 일부를 면제해 주는 등 펀드의 이익을 해하고 운용사 임직원이 주주인 차주(시행사)의 이익을 도모
관련자 비리 의혹		<p>④ 甲 : 배임수재 및 횡령 혐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甲은 SPC①의 A사(美 운용사) 부실자산 매입 대가로 A사의 대표 등으로부터 외환 자금을 수취한 혐의가 있고,- 투자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자금을 원인 없이 본인이 대표인 회사로 임의 인출하는 등 투자금을 유용